

올해, 익산 대전환의 해... 도시 바꾸는 AI 시동

익산시가 2026년을 미래도시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AI를 중심으로 3대 산업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7일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는 익산이 잠재력을 본격적으로 펼쳐며 미래 100년의 토대를 다지는 결정적인 해"라며 농업·식품·바이오 산업에 시를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말로만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행과 성과로 증명해 왔다"며 "2026년은 누적된 성과 위에 미래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쌓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성과 기반, 미래 전략에 속도

2025년 익산시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도시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다. 오랜 논의에 머물렀던 과제들이 하나씩 실행에 옮겨지며, 변화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고 있다.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입점 확정,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의 실질적 경제효과, 민간특례공인 프로젝트의 성공 청년 인구 순위 1위 달성 등은 익산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을 3+AI 전략 중심의 대전환의 해로 삼아, 산업 구조 혁신과 시민 삶의 변화를 동시에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 인공지능(AI), 산업과 일상을 함께 바꾼다

익산은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디지털 지식 산업센터를 건립하고, AI 디지털혁신센터·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AI 기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AI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무인·자율형 공정을 실증하고, 고숙련자의 기술을 AI가 학습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인재 양정도 본격화한다. AI 한글과 전담 교육센터를 구축해 시민 대상 기초 교육부터 강화학습 기반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교육 생태계를 갖춘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기반 AI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도 추진한다.

시는 디지털 기술로 시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스마트 도시'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관제센터와 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자율주행 버스를 연내 운행에 도입시킬 예정이다.

또한 구도심에는 XR 기반 디지털 관광거점을 조성해 문화·관광 영역까지 기술을 확장하고,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생활 안전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의 7일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식품·바이오 산업에 시를 융합한 고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

▲ 농업의 한계, AI로 넘는다

또한 시는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극대화 하고자 농업에 AI를 본격 도입한다.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를 중심으로 농기계·농기자재 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 기반 정밀농업 실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트랙터 개발 등을 통해 무인·자율농작업 시스템을 실현해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첨단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해 간다.

▲ 식품 산업에 기술과 문화를 입히다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유한 익산은 푸드테크 기반 식품 산업 고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식품 도시 도약을 노린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산업에 기술·문화·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식단 식품 안전관리, 대체식품 개발 등은 시민 식탁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계획 중인 국립 익산식품박물관과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는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관람객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

간으로 구현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식품도시 익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바이오 산업 중심 도시... 레드·그린바이오 다 잡는다

익산은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 분야를 모두 아우르며 바이오산업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중심으로 바이오기업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어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를 구축해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레드바이오도 성장에 속도를 낸다. 5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 등을 중심으로 익산을 국내 최대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인공혈액, 인공장기 등 다양한 동물 바이오 기술 개발이 이뤄지며, 익산은 동물용 의약품 산



업의 선도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분야별 전략 추진으로 도시 균형 발전

시는 3+AI 전략 외에도 △경제·SOC △역사·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친환경·생태복원 △안전·행정 등 5대 분야의 핵심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시청·통합일자리센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광 분야는 백제 유적 정비와 문화형 축제를 강화해 천만 관광도시 기반을 다진다.

보건·복지 분야는 모이복합센터, 어린이 전문병원, 노인연계개발교육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긴급지원과 돌봄체계를 고도화해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환경 분야는 도시숲과 생태축 복원, 노후관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행정 분야는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주민참여예산, 친절행정을 통해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한다.

정현을 시장은 "도시의 미래는 행정뿐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시민, 지역을 지켜온 공동체의 신뢰,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과 함께 완성된다"며 "올해도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미래를 실천과 성과로 보여내겠다"고 책임행정을 약속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부안군의의회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부안군의의회는
군민이 재미있게 잘사는 부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